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역량 잠재전이분석과 진로교육 및 활동의 영향요인 분석

장 희 선¹⁾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진로역량 프로파일의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잠재집단 간 전이과정을 분석하며, 진로교육과 활동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1차(고2)와 2017년 2차(고3) 설문에 모두 응답한 고등학생 중 총 4,76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 잠재전이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계고등학생의 진로역량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결과 잠재집단은 1차에는 3개의 집단유형으로 2차에는 4개의 집단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대부분 고등학생의 진로역량 잠재집단은 잠재집단을 유지하거나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전이 패턴을 보이는 것은 중역량 집단에서 중상역량으로 전이되는 패턴이지만, 고역량 집단에서 저역량으로 전이되는 패턴도 있다. 셋째, 학과체험은 항상유지패턴으로 전이될 확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남학생인 경우는 감소시킨다. 멘토특강, 학과체험, 진로상담은 감소유지패턴으로 전이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반면, 현장직업체험과 남학생인 경우 감소유지패턴으로 전이될 확률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을 높이기 위한 잠재집단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활동 내용 설계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 서론

고등학생 시기는 진로의 성장과 탐색의 과도기적 시기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이해와 주변을 탐색하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의 시기이다(Gushue, Scanlan, Pantzer, & Clarke, 2006). 따라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습과 직업·미래를 연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과 활동 경험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인식하게 하여 진로개발과 성인기에 보다 성숙한 직업의식을 갖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재성 외, 2017).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진로교육과 활동은 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며(허균, 2010), 궁극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이 앞으로 자신이 선택할 직업과 관련된 가치와 삶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교육부는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는 등 진로교육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2016학

1)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chhs@hj.ac.kr)

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진로전담 교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고등학교 내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율이 2018년 96.3%까지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 100%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을 위한 공간 설치도 75.6%(2018년)로 확대되는 등 진로교육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오호영 외, 2012; 정은진 외, 2018). 이처럼 진로교육의 확대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한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취미와 적성을 파악하여 삶의 목표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새로운 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의 흥미나 적성의 특성과 합리적 직업선택을 조력하는 과거의 진로교육에서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정지은, 2017).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과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인 직업정보탐색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전달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직업정보 제공이나 진로 선택을 위한 지원에 국한된 진로활동경험은 본질적인 교육적 중요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제한된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외적인 실행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진로교육이 요구된다. 즉, 진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하며, 진로를 계획·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진로역량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진로역량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하며(김창환 외, 2014),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되는 총체적 능력으로 (Akkerman 외, 2013), 진로결정을 주요한 구성요소로 하는 기존의 진로성숙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진로발달 분야에서 진로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진로교육이 직업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와 정보획득에서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와 태도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장면에서 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korikow, 2007). 이렇게 진로역량은 개인이 주도하는 진로의 지속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전 생애의 진로장면에서 발휘될 수 있는 특성이며,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진로는 고정적인 직업결정의 개념과 달리 변화하는 사회 및 직업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고 구성해가는 진로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의 적성, 소질, 성장잠재력을 다양하게 기르기 위한 진로교육과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자유학기제 도입 등 다양한 진로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진로교육과 활동 중 ‘진로와 직업’은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해보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진로교육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진로선택 및 정보탐색과 같이 제한된 분야만을 다룸(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으로 전반적인 진로역량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 교육과정의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수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면서 다루고 있는 교육내용도 자기탐색 활동, 직업의 세계 이해 등으로 구성(김재희, 2019)되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있다. 또한 진로체험활동은 중고등

학교에서 비교과로 1년에 1~2회 정도 진행되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진로동아리, 진로캠프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직도 진로역량을 기르기보다 대학진학이 우선시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자신의 적성, 특기, 흥미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이지만,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생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진로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최인재, 2010).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고등학교 시기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할 발달과정의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며, 이 시기의 다양한 직업탐색 및 결정이 직업만족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장면에서 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달시켜야 한다(어윤경, 2008). 따라서 이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역량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 및 활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등학생의 1차(고2)와 2차(고3) 진로역량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진로역량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1차에서 2차 시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역량의 단계적 전이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잠재집단 간 전이확률과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와 2차 잠재집단 유형의 전이패턴에 미치는 진로교육과 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진학과 취업 등 진로 결정을 앞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역량의 전이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역량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학교 진로교육과 활동 내용 구성과 운영에 기초적 자료로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에 대한 잠재집단의 구성과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고등학생의 진로역량 잠재집단 간 전이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고등학생의 진로역량 잠재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과 활동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진로역량

최근 기업과 공공조직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개념이 진로발달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진로와 관련한 구인은 진로역량 또는 진로개발역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기존의 진로 구인은 진로성숙이나 진로적응성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다. 진로성숙도는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성을 대표적인 하위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

로개발을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발달 과업으로 바라본다면 진로 결정성을 기준으로 한 진로성숙도의 개념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진로역량은 자기주도적인 진로의 지속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생애 전반의 진로장면에서 발휘될 수 있는 특성이며, 수행성 및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진로역량은 진로·직업역량으로도 다루어졌는데,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여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으로 정의되었다(안창규, 박성미, 1999). Akkerman 외(2013)는 환경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진로를 개발해나가는 관계중심적인 접근을 하며, 진로역량을 진로개발에 핵심적인 지식, 기술, 능력으로 일컬었다. 김창환 외(2014)는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하며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역량은 이렇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개인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개념이라는 맥락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진로역량은 대체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으로 구성되며 학자들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Akkerman 외(2013)는 진로역량의 하위요인을 성찰역량(진로성찰, 자기성찰), 커뮤니케이션역량(자기표현, 네트워킹), 행동역량(진로탐색, 진로관리) 3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국가 진로개발 가이드 라인(NCDG, 2003)에서는 자기이해, 학업, 직업탐색, 진로계획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캐나다 BLWD(2006)도 자기관리, 진로계획 및 설계, 진로탐색, 구직기술, 전공 및 직업 지식으로 유사한 구성을 보였다(정지은, 2017 재인용). 국내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은 진로역량(진로개발역량)을 자기이해(자아개념,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율적 능동적 태도, 일에 대한 태도), 학업직업탐색(직업세계, 학업과 진로관계, 평생학습, 진로정보), 진로계획(의사결정, 삶과 일역할, 사회변화, 직업세계의 변호, 진로계획)으로 구성하였다. 김창환 외(2014)는 진로설계, 진로직업탐색, 직업수행역량을 구성요소로 보았고, 김정화(2012)는 자기관리 및 직업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로 구성하였다. 종합하자면, 진로역량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되는 총체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Akkerman 외, 2013).

진로역량에 관한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진로직업역량으로 진로준비행동(황미경, 문영주, 2012), 진로가치, 교육여건, 진로준비행동과 관계(전중희, 2014)를 분석하였고, 진로개발역량으로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조영아, 정철영, 2013)를 살펴보았을 뿐 진로역량 구인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위와 같은 진로역량과 유사한 구인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더라도 변인들을 단편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어, 고등학생들의 진로역량의 변화추이를 종단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진로역량을 진로결정에 국한된 개념에서 벗어나 진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상호작용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진로역량의 구성요소의 변화추이를 살피는 것은 향후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을 높이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과 진로역량의 관계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진로교육의 목표를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교육부, 2015)고 제시하고 있듯이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교육과 활동인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진로활동(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진로교육의 운영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진행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기존 교육과정의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수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육내용이 대체로 자기탐색 활동, 직업 탐색으로 구성되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있다(김재희, 2019). 그리고 대부분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체험은 비교과로 1년에 1~2회 정도 진행되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진로캠프나 진로체험보다 진로이해와 탐색에 초점을 맞춘 진로상담이나 진로직업특강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장현진, 2015). 진로동아리, 진로캠프 운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일반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이해와 탐색 위주의 진로교육으로 진학지도나 진학상담 등 대학입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진로역량을 증진시키는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진로교육과 활동이 진로 관련 구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성숙도와 관련한 연구로 진로상담(한희진 외 2018), 진로체험, 진로관련 경험 등 활동의 참여도(김기현 외, 2014; 김소라, 황영준, 2016; 임현정, 김난옥, 2011; 조은숙, 2011), 진로탐색 프로그램(임은미, 임신일, 2008), 진로교육의 만족도와 도움 인식정도(장현진, 2018; 한정현, 조형희, 2018)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과 체험 같은 체험활동 참여 여부(최윤정, 김지은, 2012)와 그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조은숙, 2011; 김소라, 황영준, 2016)하기도 하며, 이것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김재희, 2019)하기도 하였다. 덧붙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을 비교하기도 하였다(길혜지, 백순근, 양현정, 2018; 한정현, 조형희, 2018; 한희진 외, 2018)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에서는 진로교육활동 변인별 진로 관련 구인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 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고등학생의 진로역량 프로파일의 전이양상을 토대로 개별 진로교육과 활동의 차별적 효과성을 분석하여 이후의 직업 만족과 연계되는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진로역량의 변화

진로 관련 구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진로발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Super는 진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발전하는 발달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진로발달을 성장기(~ 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4~65세), 쇠퇴기(65세~)의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고등학교 시기는 탐색기로 학교활동, 직업체험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교육과 활동을 통해 직업 및 진학, 진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해당 진로발달단계에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로의 결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수평적인 전환의 개념이기보다 수직적인 발달의 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특정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진로결정이나 진로성숙의 개념과 같이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발달의 과업으로 보는 진로역량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발달보다 전 생애의 진로장면에서 발휘될 수 있는 특성이면서 수행성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역량의 시간적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발달과 관련한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진로역량 변인에 관해서는 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성숙 관련 인식, 태도, 역량(임미옥, 정연옥, 2010; 조정심, 주석진, 2012;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김미란, 한수정, 2018; 한희진, 양정호, 김화영, 김영민, 2018)으로 연구되었다. 종단적 연구로는 진로성숙도 변화(어윤경, 2008; 조명근, 구남옥, 2016),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진로성숙의 변화양상(정윤경, 이지수, 안현선, 2017),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의 종단적 발달과정(이정민, 정혜원, 2016; 조명희, 이혜연, 이현우, 2013; 주석진, 2012) 등이 있다.

잠재집단 유형별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본 연구로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 후기청소년기의 진로발달 프로파일(이정민, 정혜원 2016, 2018) 연구와 특성화고 등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잠재집단 전이분석(민지식, 최수정, 2019)이 있다. 이들 연구는 종단연구방법으로 진로관련 변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진로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학생의 잠재집단 전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진로교육과 활동의 관련성에 관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과 활동이 진로구인에 미치는 영향(김소영, 홍세희, 2013), 다층 잠재파라미터분석을 통한 고등학생의 진로교육과 활동경험의 만족도 잠재집단 분류와 효과검증(백승희, 정혜원, 2018)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로교육과 활동이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종단적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과 활동이 고등학생 진로역량의 변화추이인 잠재집단 전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면, 잠재집단별 진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1차년도 자료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2016년)과 2차년도 자료인 고등학교 3학년 자료(2017년)를 중심으로 단기 종단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6년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7년 2차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의 조사 모집단은 575,521명이었다. 이중 2016년 1차 자료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문항에 모두 응답한 자료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5,393명(남학생 2,889; 여학생 2,504)의 자료였다. 그러나 2017년 2차 자료에서 응답을 거부하거나 생략한 결측치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 응답한 자료는 4,803명(남학생 2,250; 여학생 2,553)의 자료였다. 이 자료에서 1차와 2차의 단기종단 잠재전이분석을 위해 2시점 모두에 응답하지 못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786명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진로교육과 활동 및 진로역량 문항에 발생한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 1차 2차 모두 응답한 총 4,76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2,242명(47.0%), 여학생 2,526명(53.0%)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진로역량

진로역량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이해, 진로탐색, 진로관리 측면에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학생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측정한 14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진로역량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하위역량 수준을 재분류하였다. Akkerman 외(2013)가 구성한 진로역량의 하위요인은 성찰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행동역량이었고, 김경화(2012)는 자기관리 및 직업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로 구성하였으며, 정은이(2015)는 직무적응능력,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의 1차, 2차에 제시된 진로역량 하위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1>과 같이 문항은 하위구성요소별 Cronbach α 신뢰도는 .613~.868로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다.

<표 1> 진로역량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구성		문항	문항수	신뢰도	
				1차	2차
진로 이해	진로지식	진로와 직업의 의미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726	.788
	진로 커뮤니케이션	진로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형성 및 발전시키거나 갈 수 있는 역량	3	.701	.779

하위구성		문항	문항수	신뢰도	
				1차	2차
진로 탐색	진로탐색	희망(관심) 직업과 진로관련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역량	2	.868	.847
	진로정보 활용	진로 관련한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2	.613	.715
진로 행동	진로계획	자신의 진로(대학진학, 취업, 창업 등) 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준비와 계획 정도	2	.763	.779
	진로관리	원하는 진로(대학진학, 취업, 창업 등) 선택 기준 마련 및 진로계획을 실천하고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	3	.722	.817

나. 진로교육 및 활동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육고용패널 II 1차(2016) 년도 자료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관련 교육활동 중 진로교육 및 활동의 자료를 <표 2>와 같이 연구를 위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평균(SD)		
		1차	2차	
성별	남성=1, 여성=0	.47(.499)		
학교생활만족도(1차 시점)	5점 리커트 척도	3.63(.862)		
진로교육 및 활동여부	경험=1, 비경험=0	진로와 직업수업	0.90(.30)	1.19(.39)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0.79(.41)	1.28(.45)
		진로심리검사	0.83(.38)	1.17(.38)
		진로상담	0.64(.48)	1.20(.40)
		진로동아리	0.34(.47)	1.68(.47)
		직업인 멘토특강	0.73(.44)	1.36(.48)
		현장견학	0.50(.50)	1.49(.50)
		학과체험	0.43(.50)	1.59(.49)
		현장체험	0.27(.44)	1.70(.46)
		직업직무체험	0.11(.31)	1.79(.40)
진로역량	연속형(5점 리커트 척도)	진로캠프	0.22(.42)	1.76(.43)
		진로지식	3.19(.80)	3.24(.76)
		진로커뮤니케이션	3.27(.73)	3.31(.70)
		진로탐색	3.82(.81)	3.69(.74)
		진로정보활용	3.56(.75)	3.56(.75)
		진로계획	3.56(.88)	3.58(.74)
		진로관리	3.65(.71)	3.63(.64)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로 진로역량을 독립변수로 성별, 진로교육 및 활동 여부를 설정하였다. 진로역량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연속형의 변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역량 잠재집단의 명목형 변수로 구성되었다. 잠재집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 또는 유지되는데 미치는 진로교육 및 활동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이 3학년으로 성장하면서 두 시점의 진로역량 잠재집단 간 전이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과 활동의 세부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역량의 각 시점별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으로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시점과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도출된 잠재집단 간의 전이 패턴과 시점 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 및 활동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1차, 2차 시점의 진로역량, 1차 시점의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여부(진로와 직업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직업인 멘토특강, 현장견학, 학과체험, 현장체험, 직업직무체험, 진로캠프), 성별을 활용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남학생은 1, 여학생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진로역량은 5점 리커트의 연속변수이고,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여부는 더미변수로 참여했으면 1, 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Mplus 7.0과 SPSS 25를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점의 진로역량 잠재집단의 구성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1차 시점에서 2차 시점으로 이동하면서 전이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및 활동이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의 전이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자료의 기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PSS 25를 활용하였으며, 고2 시점과 고3 시점의 진로역량의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위해 Mplus 7.0을 활용하였다. 잠재전이 분석에는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시점의 잠재전이분석의 혼합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합도 지수로 BIC, AIC, Adjusted BIC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이 지표는 낮을수록 잠재유형의 수가 적합함을 보여준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그리고 분류된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엔트로피(Entropy) 값을 활용하였으며,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적절하게 분류된 것을 의미한다. 즉, 잠재유형의 결정을 위한

적합도 지수인 BIC, AIC 값이 작고, 엔트로피(Entropy) 값이 1에 가까워질 때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Reinecke, 2006), 잠재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LMR-LRT 등의 다른 적합도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지수는 하나씩 집단수를 늘려가면서 이전의 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의값을 토대로 k개 유형의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준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및 활동이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의 전이집단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승산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진로역량 프로파일의 잠재전이분석

가. 측정시기별 잠재프로파일분석

각 시점별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의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으로 2개의 잠재프로파일부터 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5개의 프로파일까지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AIC, BIC, Adjusted BIC, LMRT 지수와 Entropy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를 정하였다. 1차년도에서는 3개까지 적합도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4개이후로 감소폭이 둔화하였고, Entropy 값도 4개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므로 3개의 잠재프로파일 수로 정하였고, 2차년도에서는 4개까지 적합도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후로 감소폭이 둔화하였고, Entropy값도 증가하다가 5개부터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4개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프로파일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년도에서는 3집단, 2차년도에는 4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측정시기별 잠재프로파일 모형적합도와 분류비율

1차년도 진로역량 잠재프로파일 모형 적합도(고2) (N=4,768)

집단수	AIC	BIC	Adjusted BIC	LMRT	Entropy	집단간 분류비율(%)				
						1	2	3	4	5
2	58934.505	59057.429	58997.054	7642.113***	.789	45.1	55.9			
3	55939.417	56107.629	56025.010	2959.176***	.817	57.4	22.3	21.1		
4	54762.588	54916.088	54871.226	1171.076*	.814	6.3	30.9	16.2	46.6	
5	54332.320	54591.107	54464.002	436.899	.774	2.5	37.7	19.2	30.3	10.2

* $p < .05$, *** $p < .001$

2차년도 진로역량 잠재프로파일 모형 적합도(고3)(N=4,768)

집단수	AIC	BIC	Adjusted BIC	LMRT	Entropy	집단간 분류비율(%)				
						1	2	3	4	5
2	56047.223	56170.147	56109.772	6087.593***	.765	48.6	51.4			
3	54089.481	54257.693	54175.074	1971.742***	.810	55.6	32.5	11.9		
4	52642.966	52856.465	52751.603	1436.290***	.848	4.1	37.5	10.1	48.9	
5	52212.842	52471.629	52344.524	444.124***	.815	3.6	34.5	8.2	44.0	9.7

*** $p < .001$

나. 진로역량 잠재프로파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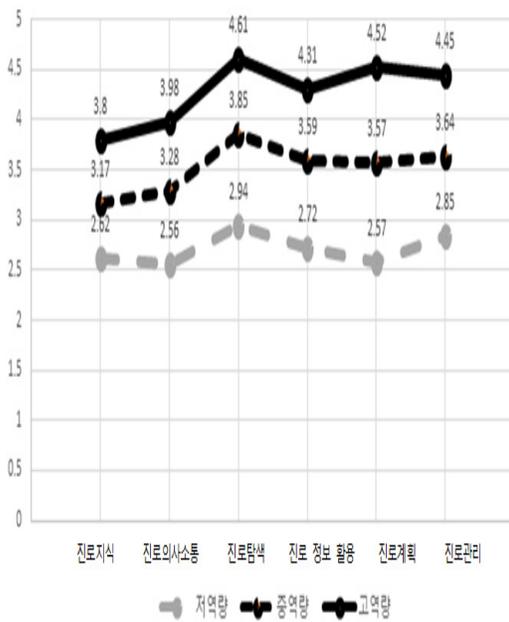
잠재프로파일별 크기(%)와 진로역량의 하위역량 요소의 특성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 [그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1차), 3학년(2차)의 진로역량의 프로파일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2학년(1차)의 진로역량의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전체대상의 약 21.1%가 되며, 모든 진로역량의 하위 역량에서 평균이하이므로 ‘저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57.4%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모든 하위 역량에서 평균정도의 수준을 보이므로 ‘중역량’이라고 구분하였고, 세 번째 유형은 전체의 22.3%로 모든 하위 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므로 ‘고역량’이라고 구분하였다. 저역량, 중역량, 고역량의 세 집단 간 역량차이는 진로의 하위역량별 큰 차이 없이 고른 격차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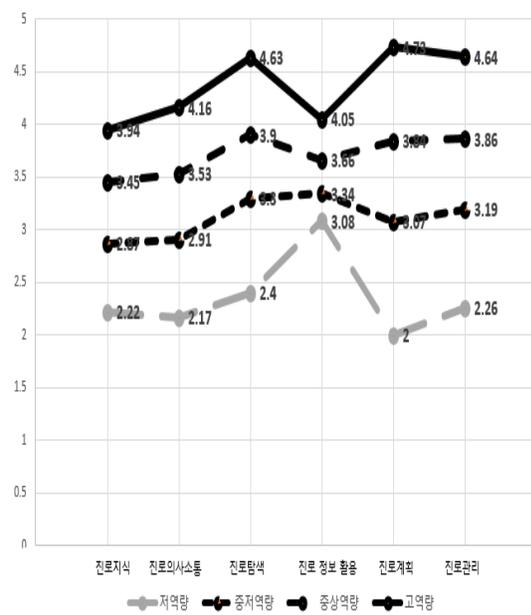
<표 4> 측정시기별 및 잠재프로파일별 진로역량의 평균(표준편차)(N=4,768)

	T1			T2			
	C3	C1	C2	C1	C2	C4	C3
	저역량	중역량	고역량	저역량	중저역량	중상역량	고역량
	21.1(%)	57.4(%)	22.3(%)	4.1(%)	37.5(%)	48.9(%)	10.1(%)
진로 지식	2.618 (.034)	3.170 (.026)	3.800 (.032)	2.222 (.076)	2.873 (.021)	3.446 (.019)	3.936 (.049)
진로 의사소통	2.560 (.039)	3.278 (.025)	3.973 (.034)	2.173 (.076)	2.909 (.02)	3.526 (.017)	4.158 (.042)
진로 탐색	2.944 (.047)	3.851 (.029)	4.606 (.031)	2.397 (.11)	3.295 (.021)	3.897 (.016)	4.634 (.028)
진로 정보활용	2.720 (.038)	3.591 (.029)	4.328 (.034)	3.078 (.07)	3.344 (.02)	3.664 (.017)	4.054 (.038)
진로 계획	2.568 (.044)	3.565 (.035)	4.516 (.038)	2.002 (.085)	3.067 (.024)	3.841 (.017)	4.730 (.025)
진로 관리	2.851 (.035)	3.638 (.028)	4.453 (.034)	2.261 (.089)	3.188 (.02)	3.860 (.013)	4.641 (.027)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2차)의 진로역량의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면, 첫 번째 유형은 전체의 약 4.1%가 분포하며, 모든 역량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진로계획, 관리의 행동측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저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전체의 37.5%로 진로역량의 하위역량에서 중저수준의 역량수준을 보여 ‘중저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세 번째 유형은 전체의 48.9%로 중저보다는 높은 역량수준을 보여 ‘중상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전체의 10.1%를 차지하며 모든 진로 하위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고역량’으로 구분하였다. 2차 진로프로파일의 특성은 ‘저역량’과 ‘고역량’이 진로계획과 진로관리 역량에서 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정보활용 역량에서는 4개의 잠재집단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다 3학년이 되면서 진로역량의 저역량과 고역량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또한 저역량과 고역량 차이는 진로역량의 하위역량 중 진로계획, 진로관리 역량에서 차이가 크게 났고,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난 하위역량은 진로정보활용이었다.



[그림 1] 고등학교 2학년 시점(1차)의 잠재집단별 진로역량 하위요인



[그림 2] 고등학교 3학년 시점(2차)의 잠재집단별 진로역량 하위요인

2. 진로역량의 종단적 전이확률

1차(고2)와 2차(고3) 시점에서 각각 3계층, 4계층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확정된 후 두 모형을 결합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모형의 적합도를 활용하여 가능한 잠재집단의 조합에 따른 잠재전이모형을 탐색하였다. <표 5>와 같이 1차(고2)의 진로역량 수준별 잠재집단에서 2차(고3)의 잠재집단으로 이동할 잠재프로파일의 전이 확률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표 5〉 진로역량 잠재집단의 전이 확률 및 전이 패턴

1차년도 (고2)프로파일	2차년도(고3) 프로파일(%)				전체
	C1저역량	C2 중저역량	C4중상역량	C3 고역량	
C3저역량	0.3 (1.4)	5.5 (26.1)	11.4 (54.0)	3.9 (18.5)	21.1 (100)
C1중역량	1.7 (3.0)	4.1 (7.1)	30.4 (53)	21.2 (36.9)	57.4 (100)
C2고역량	2.1 (9.4)	0.5 (2.2)	7.1 (31.8)	12.6 (56.5)	22.3 (100)
전체%(N)	4.1 (170명)	10.1 (481명)	48.9 (2,329명)	37.5 (1788명)	100 (4,768명)

주: 괄호 안의 비율은 1차년도 잠재집단 중 해당 전이패턴이 차지하는 비율임

먼저, 1차(고2)에서 저역량에 속한 학생들 중 2차(고3)에는 중상역량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5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고역량으로도 18.9%가 이동하는 등 다소 높은 역량수준으로 전이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저역량으로는 26.1%로 전이하지만, 저역량에 그대로 머물 확률은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저역량형 학생들의 진로역량은 2차(고3)가 되면서 1차의 자신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차(고2)에서 중역량형의 학생들은 대부분 중상역량(53%)이나 고역량(36.9%)으로 가장 높은 전이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중역량형의 학생들은 고역량형으로 전이하는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로역량이 가장 증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차(고2)에서 고역량형에 속한 학생들 중 2차(고3)에서도 여전히 고역량형에 속할 가능성은 56.5%이고, 중상역량으로 이동할 확률도 3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역량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9.4%, 중저역량형으로 전이할 확률은 2.2%에 불과하다. 즉, 고2에서 진로역량이 높았던 학생들은 고3에서도 여전히 높은 진로역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이패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전이 패턴은 ‘중역량 → 중상역량’(30.4%)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중역량 → 고역량’(21.2%) 순이었다. 중역량형 학생들이 중상역량이나 고역량으로 전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즉, 중역량형 학생들은 다음 차년도(고3)에서 중상이나 고역량형으로 전이를 가장 많이 함으로써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진로역량이 가장 높은 확률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로역량이 높았던 고역량형 학생들은 대체로 고역량형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았다. 저역량형의 학생도 다음 차년도(고3)가 되면서 중상정도(11.4%)의 진로역량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은 잠재집단을 유지하거나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차에서 고역량형이었던 학생이 2차에서 저역량형 학생으로 전이되는 패턴(9.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학생들은 1차(고2)에서는 진로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차(고3)가 되면서 졸업과 진학/취업 등 진로선택의 시점에서 그동안 꿈꾸어온 이상과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며 좌절을 경험하며 오히려 진로역량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진로역량의 잠재집단간 전이에 미치는 진로교육과 활동의 영향 검증

진로역량의 잠재집단 간 잠재전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 및 활동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이패턴은 총 12개였으나, 연구분석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향상, 유지, 감소 3가지 패턴으로 재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으로는 성별, 진로교육 및 활동을 투입하였다. 진로교육과 활동은 1차(고2)에 측정된 것으로 1=예, 2=아니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1=예, 0=아니오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진로역량의 전이패턴별로 감소 대 향상유지, 향상 대 감소유지 패턴을 비교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잠재집단 간 전이의 영향요인

감소 vs 향상 유지					
	B	S.E	Wald	Exp(B)	유의확률
성별(남=1)	-.171	.082	4.318	1.187*	.038
‘진로와 직업’ 수업	.129	.132	.952	1.137	.329
창의적 체험활동	.142	.105	1.851	1.153	.174
진로검사	.015	.109	.019	1.015	.889
진로상담	.094	.088	1.138	1.099	.286
동아리활동	.082	.091	.806	1.085	.369
멘토특강	.154	.094	2.712	1.167	.100
현장견학경험	-.130	.093	1.928	.878	.165
학과체험	.221	.091	5.913	1.247*	.015
현장직업체험	-.163	.109	2.245	.849	.134
직업실무체험	.070	.158	.198	1.073	.657
진로캠프	.174	.109	2.552	1.191	.110
Log likelihood	2207.605***				
Nagelkerke R2	.02				

* $p < .05$, ** $p < .01$

향상 vs 감소 유지					
	B	S.E	Wald	Exp(B)	유의확률
성별(남=1)	.269	.063	17.908	.765^{***}	.000
‘진로와 직업’ 수업	-.133	.105	1.614	.875	.204
창의적 체험활동	-.068	.082	.679	.934	.410
진로검사	-.011	.085	.017	.989	.897
진로상담	-.155	.068	5.216	.856[*]	.022
동아리활동	-.081	.069	1.369	.922	.242
멘토특강	-.226	.073	9.724	.797^{**}	.002
현장견학경험	-.165	.072	5.223	.848[*]	.022
학과체험	-.209	.069	9.108	.811^{**}	.003
현장직업체험	.249	.085	8.583	1.283^{**}	.003
직업실무체험	.073	.119	.380	1.076	.538
진로캠프	-.091	.082	1.248	.913	.264
Log likelihood	2186.543 ^{***}				
Nagelkerke R2	.023				

* α .05, ** α .01, *** α .001

<표 6>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소 vs 향상유지 전이 패턴의 경우에 일반고 학생의 진로역량 잠재집단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교육 및 활동 중 학과체험과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및 활동 중 학과체험은 가장 높은 오즈비(odds)를 보이며, 학과체험 활동을 한 경우 향상유지 전이 패턴에 속할 확률이 1.247(exp(.2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학생인 경우 향상유지 전이 패턴에 속할 확률이 1.187배(exp(-.17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 vs 감소유지 전이패턴의 경우에도 성별이 가장 높은 오즈비를 보이며 남학생인 경우 감소유지 전이 패턴에 속할 확률이 .765(exp(.26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교육 및 활동 중 멘토특강은 .797(exp(-.226))배, 학과체험 .811(exp(-.209))배, 진로상담 .856(exp(-.155))배 감소유지 패턴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직업체험의 경우 1.283(exp(.249))배의 감소유지 패턴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의 1차(고2), 2차(고3)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두 측정시점에서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을 확인하여 이 유형간 전이확률과 전이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의 1차,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후,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덧붙여 두 시점의 잠재집단

전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과 활동의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고등학생의 진로역량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결과 잠재집단은 1차에는 3개 유형으로 2차에는 4개의 집단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차 잠재유형은 진로역량에 따른 잠재집단유형이 비교적 뚜렷하게 높은 고역량, 보통인 중역량, 뚜렷하게 낮은 저역량으로 구분되었다. 2차 잠재유형은 진로역량의 변화가 나타나 뚜렷하게 높은 고역량, 뚜렷하게 낮은 저역량과 보통의 영역에서 중상역량, 중저역량의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1차에서 저역량의 유형은 21.1%로 다른 유형에 비교하여 진로지식, 진로의사소통, 진로탐색, 진로정보활용, 진로계획, 진로관리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1차에서는 잠재집단 간 진로역량 하위역량의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2차에 저역량형은 진로역량의 하위역량이 1차에서 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2차에서 중역량은 중상역량과 중하역량으로 좀 더 세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잠재집단 간 진로역량 하위역량의 차이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진로정보활용 역량에서 잠재집단별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나며, 진로계획, 진로관리 역량에서는 잠재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계고등학생의 진로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간 전이양상을 분석한 잠재전이 분석결과, 대부분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은 잠재집단을 유지하거나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전이 패턴을 보이는 전이패턴은 중역량 집단에서 중상역량으로 전이되는 패턴(30.4%)이며, 다음으로 중역량에서 고역량으로 전이되는 패턴(21.2%)이다. 저역량 집단도 중상역량으로 향상전이되는 패턴이 나타났다(11.4%). 고역량 집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패턴이 매우 높았다(12.6%).

셋째, 일반고 학생의 진로역량 잠재집단전이(향상, 유지, 감소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과체험과 성별, 멘토특강, 진로상담, 현장직업체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학과체험을 한 경우는 향상유지패턴으로 전이될 확률이 증가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교육과 활동 중 멘토특강, 학과체험, 진로상담은 감소유지패턴으로 전이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직업체험을 할 경우와 남학생인 경우 감소유지패턴으로 전이될 확률을 증가시켰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역량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결과 잠재집단이 1차에는 3개 유형으로 2차에는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것은 선행연구에서 진로성숙도가 모두 3개의 유형(높은 성숙, 중간 성숙, 낮은 성숙)으로 분류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민지식, 최수정, 2019). 또한 진로발달에서 진로계획 부족, 진로탐색 안정, 진로결정 확신의 3유형으로 잠재집단 유형이 구성(이정민, 정혜원, 2018)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진로발달이 단일한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결과(이정민, 정혜원, 2016; 정송 외, 201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이정민, 정혜원(2018)의 연구에서는 낮은 수준의 잠재집단이어도 진로결정 및 탐색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진로 및 직업계획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진로계획부족'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역량 집단의 진로역량 6개 하위역량 모두에

서 낮은 점수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진로역량이 낮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2차 시점에서 같은 양상을 보여 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역량 수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코앞에 닥쳐온 불안한 미래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낮은 관심(이정민, 정혜원, 2018)으로 이어져 진로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대학진학 이외의 진로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 프로그램 제공과 관심이 시급하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역량이 높은 수준으로 전이가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성숙도가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는 선행연구(민지식, 최수정, 2019)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이러한 양상은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졸업이나 대학입시, 취업 등을 앞두고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으로, 실행의 의지가 한층 높아진 것(이종범, 2005)이라 하겠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상담이나, 성적에 따른 진로 설계보다 보다 실질적인 진로 정보와 체험활동 제공 같은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에 비해 다소 적은 비율이지만, 고역량형에서 저역량형으로 진로역량이 낮아지는 전이 패턴을 보이는 9.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고역량수준의 진로설계를 계획했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결과 더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며 진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상담, 진로 지도 및 교육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체험의 진로교육과 활동은 고등학생의 진로역량 향상유지패턴으로 전이될 확률을 높여주므로 이러한 유형의 진로교육과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멘토특강, 학과체험, 진로상담도 진로역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직업체험을 할 경우 진로역량이 감소유지패턴으로 전이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간헐적인 직업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현행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임연 외, 2008; 김소영, 홍세희, 2013). 이렇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감소시키므로 학과체험이나 멘토특강, 진로상담 같이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과 활동을 설계하고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6년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차와 2차에 걸친 단기 종단연구를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계 고등학생을 다른 코호트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1학년부터 졸업 이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대상과 범위를 넓힌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역량 문항은 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에서 제공된 것으로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보다 폭넓은 진로역량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후속연구로 보다 구조적인 진로역량 설문지를 활용하여 잠재집단 프로파일과 전이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측정문항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진로역량 수준을 측정한 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이나 참여관찰 등의 질적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의 잠재집단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과 활동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후속연구로 진로역량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들이 진로역량의 전이패턴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구조적이고 다층적 관계를 통한 직간접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본다면 보다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진로성숙이나 진로결정에 국한된 진로발달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진로를 개발하는 진로역량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진로역량 변화의 종단적 전이 양상을 확인하고, 진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등학교 진로교육과 활동의 구성과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

- 길혜지, 백순근, 양현정(2018). 마이스터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준비 경험과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1(3), 225-248.
- 김경화(2012).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359-379.
-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26.
- 김소라, 황영준(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167-190
- 김소영, 홍세희(2013).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의 관련성 검증. 조사연구 14(1), 93-116
- 김재희(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교육활동 참여 및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비료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75-109
- 김창환, 김본영, 박종효, 박현정, 이관현, 채재은 (2014). 한국의 교육지표 지수 개발 연구(III): 대학생 역량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민지식, 최수정(2019).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성숙도 잠재집단 전이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 농업교육연구, 38(2), 111-137
- 안창규, 박성미(1999).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한 상담모형,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21-51
- 어윤경(200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23-41
- 오호영, 김미숙, 서유정, 기나라, 홍성민(2012).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정민, 정혜원(2016).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발달양상의 잠재계층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 29-53
- 이정민, 정혜원(2018). 후기 청소년기 학교생활만족도와 진로발달 프로파일의 잠재전이분석 및 영향요인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156-178.
- 이종범(2005).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성숙간의 관계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4), 25-41.
- 임언, 정운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정운경, 최송선, 김날, 장명희, 정명희, 장석민(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총괄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임은미, 임신일(2008). 수능직후 실시한 전공탐색 프로그램 회기평가, 전공 선택 유형 변화, 진로태도 성숙 효과, 진로교육연구, 21(1), 113-129
- 임현정, 김난옥(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261-281
- 장재성, 문성재, 이상봉(2017).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지역 일반고등학교 진로교육실태 및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7(2), 83-100.
- 장현진(2015).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81호
- 장현진(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 진로개발 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

- 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 전종희(2014).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직업역량, 학교진로교육여건, 진로가치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 청소년학연구, 21(7), 1-25.
- 정송, 이금주, 홍세희(2014).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학교 만족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1(7), 193-216
- 정윤경, 이지수, 안현선(2017).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와 학업참여 및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진로교육연구, 30(3), 1-23.
- 정은이(2015). 대학생 진로 역량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7(3), 401-428
- 정은진, 정윤경, 김나라, 류지영, 김재희, 장현진(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8).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지은(2017). 대학생 진로역량과 학생 및 대학 특성의 다층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명근, 구남욱(2016). 학교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1-23
- 조명희, 이혜연, 이현우(2013). 고교생의 진로발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와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6(2), 91-112
- 조영아, 정철영(2013).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53-77.
- 조은숙(2011). 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4), 191-208
- 주석진(2012). 청소년의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재(2010).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교육부, 2015.
- 한정현, 조형희(2018). 고등학교 유형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 요인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1(3), 1-38.
- 한희진, 양정호, 김화영, 김영민(201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4(2), 381-398
- 허균(2010).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진로경험활동과 진로성숙도의 종단관계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157-170.
- 황미경, 문영주(2012).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직업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9(4), 1-25.
- Gushue, G.V., Scanlan, K P., Pantzer, K.M., & Clarke, C. P. (2006).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19-28
- Akkerman, J., Brenninkmeijer, V., Huiber, M., & Blonk, R. W. B. (2013). Competencies for the contemporary career: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career competencies questionnair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3), 245-267
- Lo, Y., Mendell, N., & Rubin, D.(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Reinecke, J.(2006).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s’ deviant and delinquent behavior. *Methodology*, 2(3): 100-112.
- Skorikov, V. B.(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 8-24.

❖ Abstract ❖

Latent transition analysis of career competency and its predictors in
career education and activities:
from 11th to 12th graders in general high school

Chang Heesun(Heyjeon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reer competency profile of high school students using KEEP data,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groups and the impact of career education and activities. For this Purpose, the latent profile analysis,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on the data of 4,768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both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in 2016 and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groups for career competency of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 types in the first time, four group types in the second time. Second, Second, the career competency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were either maintaining in a latent group or transitioning to a higher level. While the highest transition pattern is the pattern of transitioning from medium level group to medium-high level group, there is also a pattern of transitioning from high level groups to low-capacity ones. Third, the experience of the department increased the probability that it will be transitted to the improvement-maintenance pattern. Boys reduced. Mentor special lectures, experience in departments, and career counseling reduced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a reduction-maintenance pattern but the field work experience and boys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on collective customized career education and direction of designing and supporting activities to enhance their career competency.

Key words: Career Competency, Latent Profile Analysis, Latent Transition Analysis, Career Education and Activities High School Students